



건설협회 도회 5차 운영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최근 도회 회의실에서 임직원 및 회원사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3법 추진 속도

2015년 자금유출 2조여원 넘어
도, 내달 공청회 국회 입법 추진
강원상품권 등 소비 유입 확대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강원도내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도내 자금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경제 3법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최근 지역 재투자법, 지역화폐법, 지역은행 설립법 등의 지역경제 3법에 대해 내달 공청회를 거쳐 국회 입

법을 추진한다. 강원도 지역자금 역외유출금액이 2015년 5조5000억원으로 2012년(3조3000억원)과 비교해 2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확대되고 있는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3개 신용카드사(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의 개인회원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민들의 신용카드 이용액은 2015년 한해동안 4조7000억원으로 이중 49%(2조3000억원)가 타지역에서 지

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지역은 서울(67%)과 경기(21%)가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해 수도권 중심의 역외유출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강원도가 맹점을 중심으로 2015년 매출액(3조5000억원) 중 유입액은 31%(1조1000억원)에 그쳐 유출액이 유입액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비유출입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최근 역외소비유입을 확대하고 도내 자금순환과 강원상

품권 활성화 등을 통해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지역경제 3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재투자법은 금융권과 기업들이 도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강원도에 일정비율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수도권 자금유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강원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의존도를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지역은행을 설립해 도내 영세기업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역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도운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2공구 축조공사

SK건설이 웃었다

올 두번째 기술형입찰 물량 수주

SK건설이 현대건설과의 기술형입찰 리턴매치에서 설욕에 성공하며, 올해 두 번째 기술형입찰 물량 수주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26일 조달청과 관련업체에 따르면, SK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4~25일 이틀간 열린 추정금액 2014억원 규모의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2공구 축조공사' 설계심의회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제치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이 공사는 탄기방식으로 가중치는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가 적용됐다.

SK건설 컨소시엄은 설계심의회에서 87.82점을 얻어 현대건설 컨소시엄(77.82점)을 제쳤다. 당초 현대건설은 설계점수에서 83.75점을 얻었지만 총점차등(10점)제가 적용돼 최종이 같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 대결은 현대건설과 SK건설의 올해 3번째 맞대결로도 건설업계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올해 벌어진 기술형입찰 첫 번째 맞대결

에서는 SK건설이 지난 6월 '새만금 남북2축도로1단계 4공구'를 따내며 먼저 웃었다. 이어 7월에는 현대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하며 균형을 맞췄다.

두 건설사가 1승1패씩 주고받은 가운데 올해 마지막 맞대결에서 SK건설이 승리를 거머쥐며, 올해 현대건설과 전적에서 2승1패로 우위를 점하게 됐다.

SK건설은 51%의 지분을 갖고, 토우건설(충북·김사석·15%), 용진(전남·김한섭·10%), 신화건설(강원·윤수홍, 권은등·7%), 해광건설(울산·손호태·7%), 태성건설(울산·박상원·5%), 여운(강원·정의섭·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2공구 축조공사는 1016m 길이의 방파호안과 해안보호대책시설 1식, 부대공 1식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디브리핑(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가격개찰을 진행하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IMF 외환위기 20년... 건설업계의 과거와 현재

50대사 중 26곳 '물같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후 20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어왔던 격변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건설사들이 해체돼 사라지거나 인수·합병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년간 시공능력 평가순위 50위권 건설사의 절반이 교체됐다. 사명과 경영권 변동없이 자리를 지킨 곳은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손에 꼽을 정도다.

26일 <건설경제>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그로부터 20년 뒤인 2017년의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50위 건설사를 비교한 결과 동아건설과 한보, 우방, 청구, 기산 등 무려 26개사가 50위권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편

외환위기의 신흥탄이 된 한보그룹과 기아그룹의 부도로 계열 건설사였던 한보와 기산은 공동분해됐다. 그룹 해체 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온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에 이어 최근 새 주인찾기에 나섰다. 시평액 4위였던 동아건

한보·기산은 아예 사라져 새 주인·새 간판도 수두룩 장수기업마저 순위서 밀려

사명·경영권 지킨 기업은 삼성물산·대림 등 극소수

설산업은 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고 시평액도 대폭 줄었다. 한진건설(13위)은 한진중공업에, 고려산업개발(37위)은 두산건설에, LG엔지니어링(49위)은 LG건설(현 GS건설)에 각각 흡수합병됐다.

회사 간판 교체도 많았다. LG건설(현 GS건설), 선경건설(SK건설),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등의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포스코개발이 포스코건설로 사명을 바꾼 것처럼 소폭의 개명도 잇따랐다.

'국내 건설면허 1호'인 삼부토건과 '중동 진출 건설사 1호'인 삼환기업 등 70여년 장수기업조차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두 곳 모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치면서 시평 순위가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주택사업을 앞세워 50위권을 지켰던 중견사들도 대폭 물갈이됐다.

1998년에는 한보(11위), 벽산건설(20위), 우방(21위), 풍림산업(25위), 청구(31위), 우성건설(33위), 건영(39위) 등이 상승장구했지만 20년 뒤에는 단 한곳도 5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신 공공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부영주택(12위)을 비롯해 호반건설(13위), 반도건설(27위), 대방건설(31위), 중흥토건(35위), 중흥건설(39위), 우미건설(40위), 요진건설산업(41위), 양우건설(47위), 금강주택(50위) 등이 주택경기 호황을 발판삼아 50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건설업계 '만행' 격인 현대건설은 지난 20년간 11차례 시평액 1위에 올랐고, 최근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물산도 6번 수위를 차지했다. 대우건설은 2006~2008년까지 3년간 1위였다.

김태형기자 kth@

IMF 20년, 50대 건설사 순위 변동

△1998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순위	업체명	금액(억원)
1	현대건설(주)	39,679
2	(주)대우	32,621
3	삼성물산(주)	27,821
4	동아건설산업(주)	19,947
5	대림산업(주)	15,526
6	현대산업개발(주)	14,696
7	LG건설(주)	14,689
8	쌍용건설(주)	12,874
9	SK건설(주)	11,722
10	포스코개발(주)	11,241
11	(주)한보	8,037
12	동부건설(주)	7,465
13	한진건설(주)	7,399
14	금호건설(주)	7,393
15	한국중공업(주)	7,256
16	삼성중공업(주)	6,999
17	두산건설(주)	6,792
18	롯데건설(주)	5,468
19	(주)한양	4,991
20	벽산건설(주)	4,711
21	(주)우방	4,708
22	극동건설(주)	4,655
23	코오롱건설(주)	4,550
24	삼환기업(주)	4,453
25	풍림산업(주)	4,351
26	삼성엔지니어링(주)	4,237
27	한라건설(주)	4,222
28	한신공영(주)	4,143
29	(주)태영	4,112
30	경남기업(주)	3,956
31	(주)청구	3,912
32	(주)후지타	3,875
33	(주)우성건설	3,832
34	삼부토건(주)	3,598
35	신화건설(주)	3,576
36	(주)기산	3,498
37	고려산업개발(주)	3,329
38	남광토건(주)	3,201
39	(주)건영	3,173
40	(주)보성	3,031
41	신동아건설(주)	2,936
42	현대중공업(주)	2,924
43	(주)신성	2,888
44	성원건설(주)	2,835
45	아남건설(주)	2,745
46	공영토건(주)	2,696
47	금강종합건설(주)	2,654
48	(주)삼호	2,631
49	LG엔지니어링(주)	2,601
50	대아건설(주)	2,582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순위	업체명	금액(억원)
1	삼성물산 주식회사	16,588,511
2	현대건설(주)	13,710,651
3	(주)대우건설	8,301,250
4	대림산업(주)	8,283,589
5	(주)포스코건설	7,739,339
6	GS건설(주)	7,668,502
7	현대엔지니어링(주)	6,834,578
8	현대산업개발(주)	6,066,570
9	롯데건설(주)	5,428,246
10	SK건설(주)	4,681,464
11	(주)한화건설	3,903,538
12	(주)부영주택	3,674,781
13	(주)호반건설	2,452,109
14	삼성엔지니어링(주)	1,851,648
15	금호산업(주)	1,644,500
16	한신공영(주)	1,627,303
17	계룡건설산업(주)	1,512,779
18	(주)한라	1,502,916
19	코오롱글로벌(주)	1,489,840
20	(주)태영건설	1,479,480
21	두산건설(주)	1,405,837
22	쌍용건설(주)	1,350,708
23	신세계건설(주)	1,347,610
24	두산중공업(주)	1,298,149
25	(주)한양	1,264,968
26	(주)케이씨씨건설	1,225,823
27	(주)반도건설	1,212,281
28	아이에스동서(주)	1,194,615
29	(주)삼호	1,180,989
30	(주)효성	1,154,800
31	대방건설(주)	1,081,692
32	(주)서희건설	1,034,939
33	(주)한진중공업	1,025,711
34	화성산업(주)	1,021,183
35	중흥토건(주)	995,357
36	동부건설(주)	964,246
37	제일건설(주)	918,007
38	(주)동원개발	914,041
39	중흥건설(주)	857,524
40	우미건설(주)	815,176
41	요진건설산업(주)	791,535
42	(주)서브원	769,301
43	(주)라인건설	741,709
44	(주)협성건설	720,385
45	고려개발(주)	719,256
46	(주)서한	707,733
47	양우건설(주)	700,873
48	경남기업(주)	672,261
49	삼보이엔씨(주)	594,505
50	(주)금강주택	584,835